

먼저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

무상증자는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즉 유상증자는 회사에 돈이 유입되므로 회사에 어느정도 득이 될 수 있지만 무상증자는 회사에 이론상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죠. 대차대조표의 차변에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즉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동일하죠. 즉 부채와 자본이란 자산을 사들이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를 의미합니다. 이때 부채란 다른사람들한테 꾸서 자산을 샀다는 것이고, 자본이란 주주들이 돈을 건여서 자산을 산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상증자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은 '자본'이라는 부분에 있는데...

대차대조표상 자본은 간단히 3가지 계정과목으로 분류합니다.

1.자본금 2.자본잉여금 3.이익잉여금(자본조정 제외하고)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상증자란 2의 자본잉여금을 1의 자본금으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호주머니가 3개 있는데 2번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다시 1번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계상으로는 그 돈에 대한 명목, 즉 계정과목이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변하겠죠..

즉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잉여금은 명목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주식배당이아기도 하죠.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실질상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이점은 2번 주머니가 아니라 3번 주머니 즉 이익잉여금에서 1의 자본금이라는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즉 회계상으로 달리 계정분류를 하는 거죠.

결국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주주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이 그냥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이라는 계정과목에 계정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쓸데없어보이는 짓을 하는 걸까요? 만약 쓸데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계정을 분류할 필요조차 없겠죠. 그런데 계정을 3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3에서 2, 2에서 1로 갈수록 그 명목으로

저장된 돈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자본금같은 경우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할 아주 기본적인 재산이며,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최후의 담보물이기때문에 상법상 법원의 허가가 없는 절대로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자본잉여금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로 계정분류하는 경우외에는 결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물론 약간의 예외있음) 그리고 세번째 이익잉여금은 대체로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생각!!

결론을 이야기하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분류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처분을 거의 불가능하게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공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즉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매년벌어들여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들이 불필요한 명목하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주 자본금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자본금이란 극히 제한적인 경우외에는 처분할 수 없기때문이죠.

아주 쉬운예로 이익잉여금같은 경우는, 주총결의만 있으면 아주 쉽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을 하면 회사가 벌어들인 재산이 아주 쉽게 주주들에게 빠져나가 회사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아예배당을 주식으로 함으로써 현금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본금을 늘림으로써 회사재무상태를 공고화하는 것입니다.